



정해욱 | (주)도화엔지니어링 전문
(jhok88@dohwa.co.kr)

하천지명 유래 이야기 1 한강 (漢江)

하천지명

지명은 땅의 일부에 대해 언어학적인 기호로 문자를 이용하여 표현한 지리학적 언어이다. 장소를 다른 곳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지리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며 사회에서 공유된다. 우리나라 하천지명은 조선시대 지리지와 고지도에 기재된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하천지명의 구성은 다른 이름과 마찬가지로 명명대상의 보편적인 속성과 함께 개별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천지명은 하천이 경유하는 시·군·읍·면 혹은 마을 지명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때 사용하는 지명은 하천의 유로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유로가 고을의 중심을 흐르거나, 유역면적이 고을 관내의 여러 면에 해당될 경우 고을의 명칭을 사용한다.

지명은 변화한다. 지리적 환경이 바뀌거나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명이 생겨난다. 또한 언어의 음운 변화에 순응하기도 한다. 하천지명중 전부 요소(specific toponym)는 하천의 형태, 형상, 분수계, 위치, 지점, 방향성, 말의 어원 등에서 비롯되며 후부요소(generic toponym)는 천(川)이나 강(江)이 붙는다. 천은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규모가 큰 하천

이름인 강(江)의 경우 평안도에 많이 나타나며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빈도가 높다.

탄(灘)은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얇은 여울목을, 연(淵)은 깊고 고여 있는 물을 의미한다. 하천명은 하천법에 의해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며 법정 명칭과 그 외 명칭으로, 그 외 명칭은 다시 역사적 명칭, 문헌명칭, 구간명칭, 지역명칭, 그 전 명칭으로 분류된다.

‘한’의 어원

말(言語)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대한제국 융희 2년에 간행된 우리말 어원사전 동언고략(東言考略)을 보면 지금은 거의 알 수 없는 말이 있다. 기껏해야 100년 전인데 고려시대나 삼국시대의 말 중 원시 기초언어 외에는 모두 고어와 사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나라가 바뀌어도, 불변한 말이 있다. 최초의 그리고 영원한 天音 ‘한’이 그 말이다.

1992년 ‘한 세계인류성도종 대표 정근철’이 원고소송 대리인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천주교 및 개신교를 상대로 “하느님 명호도용 및 단군성조의 경칭, 침해배제청구소를 제기했다. 갑론을박 하다가 결국 ‘특정집단의 칭호가 아니고 일



반적인 神의 범칭'이라 하여 재판은 기각되었다.

20년 전의 소송주제가 우리 고유의 신칭인 '한' 곧 한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논쟁의 소지는 지금도 상존한다.

국어학에서의 정의, 종교에서의 정의, 일반적인 정의를 초월한 보편타당한 정의가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정립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역사기록을 추론하면 6,000여년 전에 말과 글이 있었고 이를 환웅께서 정리하였다.

고조선 삼세 가락단국 때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곧 훈민정음의 모체가 되는 가림토(가림다)를 제정하였다. 이때 고산지대 유목민의 신칭인 '한'과 평야지대 농경민의 신칭인 '갸'가 혼용되었고, 이 말은 현재도 우리말의 중심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말로 하면 '한(하나님, 하느님)'으로 발음하고 글로 쓰면 신(神)으로 쓴다.

1908년에 발행된 동언고락에 의하면 우리말에 大(크다)를 '한'이라 하는데 이 '한'을 韓이라 하며, '많은 것'을 '한' 곧 韓이라 하고, 天(하늘)을 '한늘' 第一을 '한아(하나)'로 하였다. 따라서 크다, 많다, 하늘, 하나 모두 '한'이 어근이요 본음이다.

'한'은 오래된 말이고 우리말에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말림말이 많고 쓰임의 범위가 넓다. 한은 말소리를 적은 글자

로 말이 먼저고 글이 나중에 쓰인 것이다.

한(漢)은 하늘(天)의 훈(訓)이 한을(韓乙)이고 그 변음이 '하늘'이 되었다. 乙은 어조사이니 받침일 뿐이다. 그렇다면 한님(하나님, 하느님, 한얼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고, 나라이고, 존재가 된다. 하늘은 다른 별이나 다른 차원이 아니라 신(神) 자체이고 무형이고 시작과 끝이 없고 수용되지 않음이 없다.

따라서 '한'은 '하늘'의 단음절 기초어이다. 이 기초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하여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뜻을 빌린 낱말은 일(一), 대(大), 천(天) 등이 있고 소리를 빌린 낱말은 한(桓, 韓, 漢, 汗, 干(한, 간)) 등이 있다.

명사형으로 쓰인 예는 한님, 국명(마한(馬韓), 진한(辰韓), 대한(大韓), 한(漢)), 임금명칭(한인(桓因), 한웅, 한검, 한, 간, 칸(汗), 많다(한무리), 크다(한발), 넓다(한바다), 서수(한사람, 한판), 같다(한가지), 합일(한데), 시간의 중앙(한낮), 시간적 경과(한 동안, 잠깐(한뫼), 많은 차이(한참), 꼭차다(한방), 절정(한창), 높이 및 넓이의 중앙(한 가운데), 양(한량 없이), 가장 긴요할 때(한 고비), 外(한데) 등 무수히 많다.

대명사로 쓰인 예는 한 아버지(한 아비 : 할아버지), 한 어머니(한 아비 : 할머니), 형용사로 쓰인 예는 끝(한 없다), 끝까지 똑같게(한결 같다), 부사형으로 쓰인 예는 持久(한사

코), 동시(한꺼번), 속도(한달음), 한숨(단번에) 등 쓰임새는 광범위하다. 그 외에도 용례가 너무 많아 여기서 생략한다.

한강(漢江)

한강은 순수 우리말인 한강에서 유래되었다. ‘한’은 어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 ‘칸’처럼 크다는 뜻과 함께 첫째, 으뜸, 하나, 높은 등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큰 가람, 큰 강의 뜻으로 쓰였다. ‘한’이라는 글자는 소리 빌림 글자로 ‘큰 강’, 북한강과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합해지므로 ‘하나의 강’ 등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한강의 ‘한(漢)’이 중국을 뜻하므로 한국(韓國)의 ‘한(韓)’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물 이름 漢으로 보면 고유명사화 되어 논란의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또한, 한자문화권의 지명표기 혼란과 ‘한(漢)’이 은하수를 뜻하기도 하므로 한강을 국토를 가로지르는 은하수의 의미로 풀이하기도 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세종실록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漢江, 漢水 등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중국 문화의 유입으로 한가람의 명칭이 한자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의 여러 발원지 중 하나인 오대천 상류의 오대산 우통수(于筒水)는 여러 문헌에서 한강의 발원지로 소개되고 있다. 신라의 태자인 보질도와 효명이 오대산에 들어와 수도하기 위하여 암자를 짓고 살았는데 형은 상원사 부근에 아우 효명은 오대산 북대에서 수도하였다고 한다. 이때 날마다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함께 기도하였고 우통수를 길어다가 문수보살 1만 진신에게 차를 공양하였다고 전한다. 이 우통수는 우중수(于重水), 우동수라고도 하며, 한강 물의 중심이 되는데, 한강 물이 수백 리를 흘러서 바다에 들어갈 때까지 그 물빛과 맛이 변하지 않고 강물 가운데를 흐르므로 중국의 양자강과 같다하여 한강에 ‘한(漢)’자를 쓴다는 견해도 있다. 이 외에 경기도 여주 신록사의 마암(馬岩) 설화, 충청북도 단양군 남한강변 온달산성의 온달 설화, 여주군의 주어진 설화, 조선 명종 때 윤원형의 첩 난정이 한강 물고기에게 밥을 지어준 이야기 등 여러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 온다.

그 외 명칭

▶ 경강 京江

조선시대에 한성부에서 부르던, 문헌에서 사용하는 명칭의 하나이다. 경강은 도읍지를 흐르는 강을 뜻한다. 한강 중에서 한성부가 관할하는 한강구역으로서 서울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의 한강을 따로 경강이라고 하였다. 경강 내에서도 서울의 각 지역에 따라 한강에 이름을 붙여서 3강(한강, 서강, 용산강)에서 5강 그리고 8강으로 늘어났다.

▶ 남한강 南漢江, 북한강 北漢江

남한강은 남쪽에서 흘러오는 강이며, 북한강은 북쪽에서 흘러오는 강으로 한강의 구간 명칭의 하나이다. 경기도 양평이나 남양주 주민들이 물살이 센 북한강 물을 ‘숫물’ 또는 ‘웅수(雄水)’라 하고 물살이 완만하고 넉넉한 남한강을 ‘암물’, 또는 ‘자수(雌水)’라고 하였다.

▶ 노들강

서울의 노량진 일대에서 부르던 옛 이름의 하나이다. ‘노들강변 봄버들’로 유명한 노들강도 시대에 따라 3강(三江), 5강(五江), 8강(八江) 등으로 나누어 불렸다. 서울의 동작구 노량진(鷺梁津)의 ‘노량(鷺梁)’은 바로 이 ‘노들’의 한문표기이다.

▶ 대수 滯水

삼국시대부터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한강이 우리 국토의 허리를 동서로 가로지르며 띠처럼 흐르므로 대수라 하였으며, 그 명칭이 중국의 한(漢)나라 사료인 『한서(漢書)』 「지리지」와 위(魏)나라 사료에 표기되어 있다.

▶ 대탄 大灘

『신증동국여지승람』(양근)에 “대탄(大灘)은 군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곧 여강의 하류인데 용진과 합류한다. 돌이 물 가운데를 가로질렀는데 물이 넘으면 보이지 않고 물이 알

아지면 파도가 부딪쳐 격동하고 쏟아져 흘러서, 하도의 수운 하는 배들이 가끔 표몰되었다.”라고 적혀 있어 흑천이 한강에 합류하는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도미진 渡迷津

예전에 경기도 광주·남양주 지방에서 한강을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여러 문헌이나 고지도에 ‘도미진’ 또는 ‘두미진(豆迷津)’ 등으로 나온다. 한강이 팔당호를 거쳐서 하남시 배알미동·창우동과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리 사이를 지나게 되는데 이 일대를 말한다. 백제 개로왕이 도미의 아내에게 반했다는 설화가 『삼국사기』에 전해지고 있으며 도미의 이름을 따서 도미나루라 부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후대에 도미 설화를 도미진 도미나루에 결부시킨 이야기로 보인다.

▶ 동강 東江

한강(남한강)의 상류를 강원도 영월지방에서 부르는 지명이다. 강원도 태백시에서 발원한 한강 본류(골지천)가 서남류하면서 정선을 지날 때에는 조양강(朝陽江)이라 한다. 다시 서쪽의 영월지방으로 들어가면 동강이라 한다. 동강은 영월읍 하송리 합수거리(금봉연)에 이르러 서쪽에서 흘러온 평창강 서강을 합하여 남쪽의 충청북도 단양군과 충주호로 흐른다. 이때부터 남한강이 된다. ‘동강’은 영월읍의 동쪽에서 흘러오는 강이므로 동강이라 한다.

향토 사료인 『영월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에는 영월 사람들이 물길에 험한 동강을 ‘숫강’이라 하고 물길이 순한 서강을 ‘암강’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또한 동강물이 서강물보다 많아야 큰 장마가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동강은 상류의 골지천이 정선군 북면 여량리에 이르러 정선 아리랑의 유적지인 아우라지를 이루고 있다.

▶ 동작강 銅雀江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지 앞을 지나는 한강을 가리키는 부분칭으로 문헌상에 자주 등장한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동작진(銅雀津, 鎭)이 있어서 병선 6척이 주둔하

였던 곳이다. ‘동작’은 중국 조조의 무덤 앞에 세운 구리로 만든 새를 뜻하는데 이곳을 ‘동작’이라 부르게 된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 동호 東湖

서울 독섬에서 옥수동까지의 한강을 부르던 구간 명칭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면서 강을 ‘호(湖)’로 부른 예가 많은데 한강이 서울의 동쪽을 흐르므로 동호라고 하였으며 ‘동호대교’ 명칭도 이에 비롯하였다.

▶ 마포강 麻浦江

서울의 마포 앞을 부르는 구간 명칭으로 마호(麻湖)라고도 하였다. 마포는 본래 ‘삼개’라 부르던 곳으로서 경강 5강의 하나이며 한강 수운과 관련하여 물류의 집산지로 유명하였던 곳이다.

▶ 병탄 井灘

『신증동국여지승람』(양근)에 “병탄(井灘)은 군서쪽 45리 지점에 있다. 여강물과 용진물이 여기에서 합류하기 때문에 병탄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어 지금의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를 가리킨다.

▶ 북독 北瀆

신라시대에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신라에서는 4개의 큰 강을 4독(四瀆)이라 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그 중 북독인 한강을 중사(中祀)에 실었다고 하였다.

▶ 서강 西江

서울의 용산과 마포 사이의 한강을 서강 또는 서호(西湖)라 하였다. 이는 한강의 서쪽에 해당되므로 부르게 된 이름이며 마포구의 서강동과 서강대학교 등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숫물**

경기도 양평군과 남양주시 일대에서 부르던 현지 명칭의 하나이다. 양평군 양수리의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한강이 되고 경안천을 더하여 팔당호를 이루게 된다.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줄기 중 북한강은 물살이 세고 급한 반면 남한강은 물살이 순하고 완만하므로 이를 남녀의 성(性)에 비하여 북한강을 숫물이라 하고 남한강을 암물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숫물은 곧 ‘웅수(雄水)’의 뜻이다.

▶ **숫강**

한강(남한강)의 상류를 강원도 영월 지방에서 부르는 현지 명칭이자 구간명칭의 하나이다. 태백사에서 발원한 한강 본류가 정선에서 조양강이 되었다가 영월지방으로 들어오면 영월읍의 동쪽에서 흘러오므로 동강(東江)이라 하는데 이 동강의 물길이 서강보다 험하므로 현지에서는 동강을 숫강이라 부른다고 한다. 숫강은 이 지역 발음상 ‘수강’으로 통하는데 물살이나 물길이 험하고 순탄함에 따라 이를 암수로 구분하여 부른 것이다. 숫강은 곧 웅강(雄江)의 뜻이다.

▶ **아리수 阿利水**

삼국시대부터 불려온 이름이자 명칭의 하나이다. 아리수는 광개토태왕비문에 나오는데 ‘아리’는 한강 이외에도 고대의 여러 강 이름으로 나온다.

▶ **암물**

경기도 양평과 남양주의 한강변 지역에서 부르던 현지 명칭이자 구간 명칭의 하나이다. 암물은 곧 ‘자수(雌水)’의 뜻이다.

▶ **여강 驪江**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내의 북쪽을 흐르는 한강을 부르던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여주)에 “여강(驪江)은 주 북쪽에 있으며 객관은 강을 베개로 하여 지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여강이라는 강 이름이 일부 지명으로 남아서 여강

이씨 등의 관향으로 쓰이기도 한다.

▶ **열수 洌水**

조선시대까지 경기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열수’라는 이름은 고려시대 이후 부르게 된 이름으로 보이며, 이는 한강의 또 다른 이름인 아리수나 옥리하와 같은 ‘을’ 계 열어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을’은 사물의 핵심이나 근원 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물을 뜻하는 옛말의 하나로 보기도 하며 정약용(丁若鏞)은 『아언각비』에서 한강의 본래 이름이 ‘열수’라 하였다.

▶ **왕봉하 王逢河**

삼국시대에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한강 하류의 행주지방에서 부르던 이름이다. 고양과 행주는 본래 백제의 성현과 개백현인데 고구려 안장왕 때 복속되었고 신라 경덕왕 때 이를 고봉현(高烽縣)과 왕봉현(王逢縣)으로 고쳤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이곳 한씨 처녀가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봉화를 올려 고구려 안장왕의 군대를 맞아들였다. 높은 산에서 봉화를 들었으므로 ‘고봉현’이 되고 또 한씨가 안장왕을 상봉하였으므로 ‘왕봉현’이라 부른다고 한다. 왕봉하는 강에 고을 이름을 붙인 것이며 행주 한씨 처녀와 안장왕의 극적인 상봉 이야기는 『춘향전』의 소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용산강 龍山江**

조선시대에 용산 일대의 한강을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용산강은 용호(龍湖)라고도 하였는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서울지역의 한강에 ‘호(湖)’를 붙여 동호, 마호, 서호 등으로 부른 것과 같은 예이다. ‘용산’ 지명 유래에 대해 백제 기루왕 때 한강에 두 마리의 용이 나왔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양화진 동쪽 언덕을 용두봉(龍頭峰)이라 부르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 옥리하 郁里河

백제 때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름이다. 옥리하는 ‘아리수’와 같은 ‘울’ 계열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이는 ‘아리’가 사물의 근원이나 그 핵심을 뜻하는 알 또는 물과 관련된 이름으로서 아리와 같은 계열어(아리, 오리, 우리 등)로 풀이한다. 옥리하의 ‘하’는 ‘황산하-낙동강’, ‘한산하-한강’ 등과 같이 중국 북방계열의 하천지명 표기관례(황하, 요하 등)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음수 陰水

강원도 정선군 북면 일대에서 부르던 현지 명칭의 하나이다. 한강 본류가 되는 골지천이 동쪽의 임계면에서 흘러와 여량리와 유천리 일대에 서송천을 합하므로 이 합수지점을 아우라지라 한다. 아우라지 일대에서는 오대산 줄기에서 남류하는 송천의 물살이 급하므로 이를 양수라 하고 임계에서 흘러온 골지천은 송천보다 흐름이 완만하므로 음수라 하여 두 물의 물살에 따라 음양(陰陽)으로 구분하고 있다.

▶ 조강 祖江

한강 하류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한강과 임진강이 경기도 과천시 교하 서북쪽에서 만나 서쪽으로 흐르는 구간(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유도까지)으로서 바다처럼 거대한 강을 이루므로 ‘큰강’, ‘할아버지 강’의 뜻으로 조강이라 한다. 한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최하류가 되며 조수(潮水)가 물때에 맞춰 드나들므로 조강(潮江)의 뜻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과 강 건너 북한의 개풍군에도 조강리가 있으며 예전에 ‘조강물참’이 널리 알려졌던 곳이다. 김포시 조강 부근에 애기봉 전망대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통진에 “현동쪽15리 지점의 한강과 임진강이 합하여 이 강이 된다.” 라고 하였으니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에서 하성면 시암리까지의 강을 말한다. 서해와 만나기 전에 한강이 모든 지류의 물줄기를 아우른 으뜸가는 강이라는 뜻으로 조강이라고 한 것이다.

▶ 조양강 朝陽江

강원도 정선지방에서 부르는 구간 명칭의 하나이다. 한강 본류가 되는 골지천이 정선군 북면 여량리 아우라지에서 송천을 합하여 영월지방으로 흘러가는데 정선읍 가수리 일대 까지를 조양강이라 한다. 조양강의 내력은 정선읍 북설리 강남 쪽에 조양산이 있으나 강 이름이 먼저 생긴 것인지 산 이름이 먼저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다. ‘조양(朝陽)’은 아침별을 뜻하는데 『시경詩經』에는 ‘봉명조양(鳳鳴朝陽)’이라 하여 “봉황이 산 동쪽 조양에서 울면 천하가 태평하다고 하였고 봉황은 아침별을 좋아한다.” 라고 하여 지명에 많이 인용되고 있다.

조양강은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상정바위산 서쪽에 한반도 지형을 만드는 등 곳곳에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조양강의 ‘조(朝)’는 조선(朝鮮)을 뜻하기도 하는데 조양강이 휘돌아 흐르면서 한반도 지형을 만들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 한산하 漢山河

삼국시대부터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문헌에 따라 한수(漢水) 또는 한산하로 나오는데 신라 진흥왕이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운 후 557년(신라 진흥왕18) 신주(新州)를 한산주(漢山州)로 고쳤다. 한산하라는 이름은 한산주를 흐르는 강으로 풀이되지만 옛강 이름에 있어서 낙동강을 ‘황산하’라 하고 한강을 ‘한산하’라 부른 점은 모두 우리말 ‘한뫼가람’의 같은 표기라는 주장도 있다.

▶ 한수 漢水

『삼국사기』의 백제 건국설화에는 한강을 한수로 표기하고 있다. 한강의 명칭에 ‘한(漢)’이라는 글자를 쓴 것은 중국 문화를 도입한 이후의 일인데 ‘寒’, ‘漢’은 모두 우리말의 ‘한’을 음차 표기한 것으로 큰 강을 뜻한다. 🌐